

제 1 교시

국어 영역

○ 문항 수는 25개이며, 문항별 배점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점은 모두 4점입니다.

()고등학교 ()학년 이름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는 일반적인 절차는 ‘읽기 전 활동-읽기 중 활동-읽기 후 활동’의 3단계를 거치며 읽는 것이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기,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기, 글의 차례나 소재목을 보고 질문 만들어 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 숨겨진 내용이나 집필 의도 등을 추론하기, 내용의 사실성·논리성·타당성 비판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에서는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는 이러한 독서의 일반적인 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독서를 수행한다.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잘 활용한다. 인간의 머리는 텅 비어 있는 상자가 아니며,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글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만 짜여 있지는 않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을 연결시키며 글을 읽는다. 그리고 글의 일부만 가지고도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글의 내용을 추리한다. 이를 두고 어떤 심리학자는 ‘심리적 추측 게임’이라고 말했다. 독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도 독자의 기존 지식과 적절하게 잘 통합되어야만 잘 기억된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적용하는 배경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의 화제 또는 내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글의 구조적(형식적) 특징에 관한 지식 등이 그것이다. 만일 독서의 과정에서 독자가 잘못된 배경지식을 적용하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1. 이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전략
- ② 독서의 과정
- ③ 독해의 원리
- ④ 능숙한 독자의 특징
- ⑤ 배경지식의 활용 방법

2. 독서 과정에 따른 전략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읽기 전-글 내용 예측하기, 집필의도 추론하기
- ② 읽기 중-소재목으로 질문 만들기, 중심내용 파악하기
- ③ 읽기 중-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 ④ 읽기 후-읽는 목적 확인하기, 내용 타당성 비판하기
- ⑤ 읽기 후-새롭게 알게 된 내용 활용방안 생각하기, 요약하기

3. 배경지식을 잘 활용하는 독자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글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다.
- ②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글의 내용을 연결한다.
- ③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리한다.
- ④ 기존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을 잘 통합한다.
- ⑤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른 글은 과감하게 건너뛰기한다.

4. 글의 종류에 따른 올바른 독서 방법을 설명한 것은?

- ① 설명문- 대상의 정보를 파악한다.
- ② 기사문-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한다.
- ③ 소설- 함축적 표현에 주목하여 감상한다.
- ④ 광고문- 주장에 맞는 근거인지 따져가며 읽는다.
- ⑤ 논설문- 과장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없는지 판단한다.

5. ㉠과 같은 독자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의 특성에 따른 서술 방식을 참고하여 읽는다.
- ② 소재목을 보고 모르는 부분은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③ 글의 중심 화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읽는다.
- ④ 잘못된 배경지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며 읽는다.
- 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은 다음에 읽도록 미루어 둔다.

6.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 (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 (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 (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7.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 ㄷ. '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 ㄹ.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8. <보기>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 기>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낑으세요'를 [나으세요]로 발음하거나 '쌍이다'를 [싸이다]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 ① '하얏다'를 [하야타]라고 발음한다.
- ② '좁히다'를 [조피다]라고 발음한다.
- ③ '놓는다'를 [논는다]라고 발음한다.
- ④ '그렇죠'를 [그러쵸]라고 발음한다.
-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한다.

9. <보기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1>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 한다.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 기2>

내일은 소풍 가는 날, 비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 잔디밭을 ㉡밟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며 ㉣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잠도 오지 않았다.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여러 형태의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남과 주고받거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생각도 주고받는다. 생각이나 기분은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과 글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예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말은 인격을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나) 그런데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즐겁고 밝게 만들어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후자의 말보다는 전자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부정적 언어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性), 지역, 민족, 인종, 장애 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이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은 성별이나 출신 지역, 인종 등을 불필요하게 구분하거나, 장애나 신체의 특징, 국적 등을 나쁜 의도로 강조한다.

(라) 예를 들어 ㉡‘여대생’이라는 말은 ‘남대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이다. ㉢‘촌스럽다’는 지역 차별적인 표현이며, ㉣‘살색’은 인종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귀머거리’와 ‘병어리’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고, ㉤‘뚱보’와 ‘난쟁이’는 ‘살찐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놀리는 차별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일본인’을 낮잡아 이르는 ‘왜놈’은 국적을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표현을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청소부’나 ‘간호원’, ‘파출부’ 등도 본래 직업을 차별하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각각 ‘환경미화원’, ‘간호사’, ‘가사 도우미’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바) 부정적 언어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요즈음 우리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애, 왜 모르는 척하니?”를 “야 인마, 왜 썩까!”라고 말한다든가, ‘젠장’, ‘제기랄’, ‘놈’, ‘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개종다’, ‘개재미있다’처럼 단어 앞에 ‘개’를 붙이는 경우 등이 있다.

10. (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개인적 특수성을 띤다.
- ② 언어는 발화자 위주의 일방향성을 띤다.
- ③ 언어는 사회 구성원의 도덕 수준과 관련이 없다.
- ④ 언어를 갖고있으면 사회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 ⑤ 언어는 인격을 드러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립적인 의미를 가졌던 단어도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부정적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②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단어를 새 단어로 바꾸기도 한다.
- ③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종 차별적인 편견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 ④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사람들의 사고와 단어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 ⑤ ‘간호원’이나 ‘파출부’보다는 ‘간호사’나 ‘가사 도우미’가 좀 더 전문적이고 위상이 높아진 느낌이 든다.

12. ㉠~㉥ 중, <보기>의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기>

우리는 백인, 흑인이라고 자주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처럼 피부색을 가지고 지칭하는 단어가 인종 차별적 단어로 여겨져 지탄받는다. 미국에서 ‘negro’라는 단어는 피부색을 지칭하여 흑인을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frica American’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조상 혹은 살던 곳의 기원만을 드러내어 더 중립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13. ㉦과 가장 거리가 먼 표현은?

- ① 여학생 ② 여의사 ③ 여검사
- ④ 여교수 ⑤ 여경(女警)

14. ㉧과 같은 표현을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
- ② 개인적인 특징을 단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 ③ 감정이 상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된다.
- ④ 고마워하며 자기의 신체적 결함을 고치게 된다.
- ⑤ 외모 지상주의에 얽매어 예민하게 신경 쓰게 된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1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임의 부재 상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된 시조이다.
- ⑤ 화자의 인식이 개인적 체험에서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되며,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6. 이 시조의 화자와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 ①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②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미지(未知)의 새./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 ③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 ④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⑤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 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따뜻하고 안온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 ③ 임과 함께 하는 즐거운 이미지와 연결된다.
- ④ 임이 자신을 찾아오는 계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⑤ 임에 대한 절개와 지조 등 유교적 주제 의식을 나타낸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화는 발신자 중심의 매체다. 전화를 거는 사람이 시간을 선택하면, 받는 사람은 그 시간에 받아야 한다. 그에 비해 편지나 전자 우편은 언제 열어 볼지를 수신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그 중간쯤에 있고, 쪽지창은 전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뭔가를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 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간단한 대화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심각한 내용의 대화라면 현실의 업무와 가상 공간의 소통을 양립(兩立)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전자 우편을 쓰면서 전화로 친구의 고민을 들어 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상태를 얼마 이상 지속하면 두뇌에 큰 부하(負荷)가 걸려 곧 지쳐 버린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부분적 관심의 지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 골먼의 책에서 이런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 친언니를 잃은 한 여자가 그보다 몇 해 전에 누나를 잃은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친구는 애도의 말을 전했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친구의 말에 감동한 여자는 오랜 병치레로 고생했던 언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언니를 잃은 슬픔으로 자신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글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상황인지 서서히 윤곽이 잡혔다. 그녀가 한 시간 남짓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소연을 하는 동안 그녀의 친구는 전자 우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대답은 점차 성의가 없어지고 요점을 벗어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애초에 그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했다.

‘정성’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소중한 덕목이다. 그렇다면 정성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정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어도 텔레비전에 빠져 있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기 일쑤다.

방송 통신 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휴대 전화 가입자 수는 5,3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입 인원은 갓난아이를 뺀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 전화를 한 대씩 가진 셈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휴대 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예컨대 찻집 같은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 한참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문자에 몰입하면 앞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야말로 몸 둘 바를 모르게 되면서 자기도 전화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것이다.

18.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전화와 편지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전화는 쌍방향 관계의 매체이고, 편지는 일방향 관계의 매체이다.
- ② 전화는 발신자 중심의 매체이고, 편지는 수신자 중심의 매체이다.
- ③ 전화는 이메일과 성격이 유사하고, 편지는 이메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④ 전화는 기계 문화를 대변하고, 편지는 인간의 정서적인 감정을 강화한다.
- ⑤ 전화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편지는 쪽지창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속 지속되면 두뇌에 큰 부하가 걸린다.
- ② 집중력이 분산되어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다.
- ③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④ 힘들어도 두 가지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
- ⑤ 한 가지 일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일에도 눈을 돌리는 현상을 말한다.

20. '휴대 전화의 보편화'로 생긴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기 힘들어졌다.
- ② 사람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 ③ 친척끼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전화하는 시간이 늘어 독서량이 줄어들었다.
- ⑤ 전화를 아무데서나 받아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21. ㉡처럼 생각한 이유는?

- ①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 ② 친구가 바쁜 와중에도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 ③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④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 ⑤ 친구가 자신보다 더 비참한 처지였기 때문에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학은 ㉠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편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2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3.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4.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25. 밑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수고했습니다.